

광주체고 태권도 남녀 동반 종합우승...개교 50년만 정상

김가현 라이트급·김지연 웰터급·박시현 라이트헤비급 **금 수확**
나정후 라이트급 **금**·이재희 헤비급 **銀**·이정훈 라이트미들급 **동**

광주체육고등학교 태권도팀이 개교이후 50년만에 전국대회에서 남녀 동반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체육고 태권도팀이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제8회 태권도원배 전국선수권대회 겨루기 부문에서 남녀 동반 종합우승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체고 태권도팀의 남녀의 종합우승은 1972년 개교 이후 50년 만이다.

동반 종합우승의 서막은 여고부가 먼저 열었다.

김가현이 라이트급, 김지연이 웰터급, 박시현이 라이트헤비급에서 금메달 3개를 수확하며 종합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준우승은 금 2개, 은 2개의 고양고, 3위는 금 1개, 은 1개, 동 2개의 부천정보고에게 돌아갔다.

이어 남고부는 나정후가 라이트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이재희가 헤비급에서 은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체육고 태권도팀이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제8회 태권도원배 전국선수권대회 겨루기 부문에서 남녀 동반 종합우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메달, 이정훈이 라이트미들급에서 동메달을 수확해 금 1개, 은 1개, 동 1개의 성적으로 최종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대회에서 권은진 코치와 김의철 코치는 각각 여고부, 남고부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광주체육고 김재안 교장은 "코로나19로 운동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태권도부 선수들이 대견스럽다"며 "10월에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주체육중 전국수영대회 금 1·은 2·동 1개



광주시교육청은 체육중 정건우(사진 가운데)가 제1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남자중학부 평영 200m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체육중학교 수영팀이 전국수영대회에서 금메달 1개·은메달 2개·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체육중 정건우가 제1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정건우는 남자중학부 평영 200m 결승전에서 2분 19초 76의 기록으로 가장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정건우는 25m를 남기고 전력질주해 광주에 첫 금메달을 안겼으며 이어 열린 평영 50m에서도 30초 10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또 송지훈은 남자중학부 접영 200m 결승전에서 2분 09초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으며 1학년 유석민은 자유형 800m에서 8분 40초 19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지는 체육중 수영감독은 "선수들이 고향에서 열리는 첫번째 전국대회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내년 소년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KBO 후반기 최대 변수? 10명 바뀐 외국인 선수

2019년 9명 시즌 중 교체...2020·2021년은 코로나 여파 속 5명·7명 방출

전열을 재정비한 프로야구가 짧은 휴식기를 마치고 22일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달라진 외국인 선수들의 면면은 본격적인 순위 싸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반기에만 10명의 외국인 선수가 짐을 썼다. 전체 30명 중 1/3의 얼굴이 바뀌는 셈이다. 10개 구단 중 외국인 선수를 바꾸지 않은 구단은 키움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NC 다이노스 등 3팀 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선수 수급이 어려웠던 최근 2년과 비교하면 올 시즌 외국인 선수 교체는 더 빠르고, 과감하게 이뤄졌다.

지난해는 7명, 2020년에는 5명의 외국인 선수가 시즌 중 방출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9명의 선수가 시즌을 완주하지 못했다.

선두 싸움을 하는 SSG 랜더스의 결정은 더욱 돋보인다.

SSG는 개막 후 단 한번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전반기를 마쳤지만 전력 보강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이번 노바와 케빈 크론을 내보내고 대체 선수로 손 모리만도, 후안 라가레스를 영입했다.

시즌 중 합류하게 된 모리만도와 라가레스가 KBO리그 정착률에 성공하면 SSG의 정상 등극에도 더욱 힘을 받게 된다.

SSG, 키움과 함께 3강에 속해있는 LG 트윈스도 새 얼굴이 출격 대기 중이다. 리오 루이즈

의 대체 선수로 합류한 로벨 가르시아는 연구리 부상으로 전반기 내 데뷔가 무산됐다. 긴장을 회복한 투이즈는 LG의 후반기 선두 싸움의 키가 될 전망이다.

KIA 타이거즈는 새 외국인 투수 토마스 파노니와 함께 후반기 순위 싸움에 참전한다. 파노니는 지난 14일 LG전서 4¼이닝 4실점으로 KBO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두산 베어스는 지난해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아리엘 미란다를 방출하고 브랜든 와델과 손을 잡았다. 최근 7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을 일거내고도, 올해 전반기를 7위로 마감한 두산이 와델과 함께 '미러클'을 재현할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

롯데는 올스타 휴식기에 결단을 내렸다. 전반기 85경기에서 13개의 홈런을 날렸지만, 타율 0.228로 정확성 면에서 낙제점을 받은 DJ 피터스를 방출했다.

가을야구에 대한 꿈을 놓지 않은 롯데는 새 외국인 타자를 빠른 시일 내에 영입할 계획이다.

일찌감치 2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한 KT 위즈와 한화 이글스의 대체 선수들은 순조롭게 KBO리그에 적응하고 있다.

4위 KT는 웨스 벤자민과 앤서니 알포드와 함께 3강 추격에 고삐를 죄다. 최하위 한화는 예프리 파리레즈, 펠릭스 페나와 함께 방등을 기대하고 있다.

토틀의 '한국사랑'...손흥민·조소현, 새 원정 유니폼 모델로

토틀, 지난 10일 방한해 한국 투어 성공으로 마치고 17일 돌아감



토틀에서 뛰는 손흥민과 조소현. (캡처=토틀 홈페이지)

한국 투어를 성공으로 마치고 돌아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틀 핫스퍼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사랑을 드러냈다.

20일(한국시간) 토틀 구단 홈페이지엔 'EPL 득점왕' 손흥민(30)을 전면에 내세운 원

정 유니폼 광고가 등장했다. 2022-2023시즌 토틀의 새 원정 유니폼은 지난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세비야와의 친선경기에 처음 착용한 것으로, 보라색과 흰색이 섞인 유니폼이다. 유니폼을 홍보하는 배너 중앙엔 손흥민이

등장한다.

또 구단 내 쇼핑몰 사이트에서도 원정 유니폼 메인 모델로 손흥민을 내세웠다. 손흥민은 토틀 원정 유니폼을 입고 '찰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원정 유니폼의 예시로도 손흥민의 등번호 7번과 SON이 적힌 유니폼이 나타난다.

토틀 여자팀에서 뛰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조소현도 손흥민과 함께 쇼핑몰 사이트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한국 팬들을 위한 전용 사이트가 아니라,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접속해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토틀은 지난 10일 방한해 K리그 울스타인 팀 K리그, 세비야와 두 차례 친선경기를 치른 뒤 17일 영국으로 돌아갔다.

방한 기간 새 시즌을 준비하는 바쁜 일정에도 오프트레이닝 등 팬서비스를 선보여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한국 투어 기간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한국에서 위대한 경험을 했다. 모든 게 감사하다"고 적었다.

또 손흥민의 단짝인 해리 케인 역시 지난 17일 토틀 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상에서 "한국에서 시간을 즐겼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국을 다시 찾고 싶다. 잊지 못할 한 주였다"고 했다.

뉴시스

역도 신록, 아시아주니어선수권 남자 61kg급 우승

같은 체급 조민재는 용상 동메달

한국 역도 기대주 신록(20·고양시청)이 2022년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신록은 19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벌어진 대회 남자 61kg급 경기에서 인상 126kg, 용상 155kg, 합계 281kg으로 3개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합계 2위인 인도의 티무르칸 마드하반(265kg)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신록은 한국 역도의 떠오르는 신예다.

지난해 12월 타슈켄트에서 치른 2021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남자 61kg급 경기에서 인상 132kg, 용상 156kg, 합계 288kg을 들어 3개 부문 모두 우승한 바 있다.

같은 체급에 나선 조민재(전남고)는 용상에



서 동메달(147kg)을 따. 인상에서 114kg을 들어 4위에 그쳤던 조민재는 합계에서도 4위(261kg)에 머물렀다.

이대호 본 최정 "저는 은퇴 예고 안하려고요"

"타율 1위 하고 은퇴하려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

"은퇴 시즌에 타율 1위를 하고 있다면 저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은퇴 시즌에 타율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이대호(40·롯데 자이언츠)를 바라보며 최정(35·SSG 랜더스)이 한 말이다.

"조선의 4번 타자"로 불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거포로 활약한 이대호는 일찌감치 올해를 마지막 시즌으로 정했다.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이대호는 지난 16일 잠실구장에서 마지막 올스타전을 치렀다. 5회말 클리닝 타임 때 첫 은퇴 투어도 실시했다.

이대호는 올해 후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은퇴 투어를 이어간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10개 구단은 한국 프로야구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이대호의 마지막 시즌을 기념하며 은퇴 투어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모든 구단이 참가하는 은퇴 투어는 2017년 '국민 타자' 이승엽 이후 두 번째다.

하지만 이대호의 은퇴에 아쉬움을 표하는 팬들이 적잖다. 그가 전성기 때 못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 특히 롯데 팬들의 아쉬움은 더하다.

이대호는 올해 전반기 8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41에 11홈런 46타점의 성적을 올렸다. 전반기 타율 1위에 올라 은퇴 시즌에 타격왕에 도전하고 있다. 또 108안타로 최다 안타 공동 선두도 달리고 있다.

은퇴 시즌에 맹활약을 펼치는 이대호를 향해 후배들은 "정말 은퇴하는 것이 맞나"

고 반문할 정도다.

하지만 이대호의 결심은 확고하다. 그는 수 차례 인터뷰에서 은퇴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런 이대호에 대해 SSG 강판 타자 최정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대호) 형은 너무 박수 받을 때 떠나시는 것 같다"고 아쉬운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나 "나는 은퇴할 시기가 다가와도 미리 말을 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호) 형은 은퇴 시즌에 타율 1위를 달리고 있지 않나.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뛰었던 데이비드 오티스는 은퇴 시즌에 커리어하이급 성적을 거뒀다"고 말한 뒤 "나라면 아까워서 은퇴를 못할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은퇴하겠다고 미리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최정은 "나는 마음 속으로 은퇴를 생각하다가도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은퇴를 미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어려운 결심한 선배를 응원하는 마음은 다른 후배들과 마찬가지로 같다.

최정은 "대호 형이 프로야구 역사의 한 획을 긋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선수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셨다.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제2의 인생도 현역 때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사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순목 통증 속에서도 전반기에 타율 0.290 12홈런 51타점의 준수한 성적을 거둔 최정은 후반기에 준비 중이다.